

전주시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 축제 개최

2일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서 힐링 콘서트·근로자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가 '氣(기)-UP(업) 힐링콘서트' 행사를 준비하며 전주시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 위한 화합 한마당 축제를 마련했다.

전주시와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회장 임동욱)는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전주시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 축제'를 오는 2일 개최한다.

'氣(기)-UP(업) 힐링콘서트' 행사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이 마련됐

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과 우수 근로자 표창이 수여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 공간도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여기에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이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장기자랑 행사와 '김성수 모던 재즈트리오' 팀의 감미로운 재즈 공연 등도 펼쳐진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기술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내년에도 시는 기업지원사업을 보완·개선하고, 새로운 기업지원 시책 등을 발굴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임동욱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축제는 경기침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노사가 함께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행사를 준비한 만큼, 전주시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심규문 전주시 산업경제국장은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축제 개최를 축하한다"며 "지역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은 강한 경제 전주시의 미래를 살리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26명 모집

전주시, 7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서 접수

전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지역 취업 취약계층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일부터 7일까지 2023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126명을 모집 계획을 30일 밝혔다.

참여 자격은 만18~65세 근로능력자(청년일자리사업은 만18~39세)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서 재산이 3억 원 미만인 전주시민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등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 조건은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1일 7시간씩 주 35시간, 65세 미만 일반사업은 1일 5시간씩 주 2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임금은 시급 9,620원과 간식비 5,000원에 주·월차, 공휴일 유급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되면 1월 2일부

터 3월 17일까지 '도서관 자료실 활성화 사업 등 DB 구축사업, 모자간강 상담 및 접수 등 서비스 지원 사업,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 환경정비사업' 등 총 63개 사업에 배치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 일자리정책과(063-281-239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전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공공근로사업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며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음식점·화장실' 청결 환경개선 앞장

2023년 업체 20곳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최대 700만원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도시 위상에 걸맞는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음식점과 화장실의 위생을 꼼꼼히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23년 '음식점 및 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청결하

고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해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을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시는 노후 화장실 개·보수 사업 신청자를 선정해 환경개선에 필요한 수리비용 중 최대 70%(최대 700만원), 30%는 업소부담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내년 3월 공고문을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

시는 또 음식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화장실을 청결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는 업소를 선정해 시상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거쳐 우수업소로 선정된 곳에는 위생·편의용품 등이 제공된다.

김종택 복지환경국장은 "지속적인 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쾌적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화장실 청결 관리에 우수한 음식점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위생 수준이 높아지면 외식을 즐기는 시민과 미식관광을 즐기는 여행객이 늘어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옥내소화전 설치 시 사용 요령 기재 표지판 붙여야"

전주덕진소방서, "내·외부에 외국어 포함 작성해야"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시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 붙여야 하고 이 경우 사용요령을 외국어를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제7조 제5항에 "옥내소화전설비의 합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하며, 표지판을 합이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 및 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 조항이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등을 위해 외국어 및 시각적 그림으로 옥내소화전 사용법

을 알려 화재 초기 소화를 수월하게 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또 옥내소화전 이용자가 문을 열었을 때 사용법을 보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을 개방한 상태에서도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및 외부에 모두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이도록 했다.

전주덕진소방서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외국인 관광객과 근로자 등이 증가하고 있어 소방시설 이용에 외국인들을 향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며 "옥내소화전 표지판 부착은 외국인인 물론 우리 주민 모두의 화재 피해 저감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설공단, 기술 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홀몸 어르신 집 2곳 찾아 노후 전기시설 점검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 직원들이 기술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지난달 30일 공단은, 수영장운영부와 체육관운영부 소속 기술직 직원이 10여 명은 최근 덕진구 덕진동 홀몸 어르신의 집 2곳을 찾아 누전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전기시설을 점검했다.

직원들은 낡은 조명을 새 LED 등으로 바꾸고, 낡은 스위치도 새것으로 교체했다. 또 창고나 대문 앞 등 조명 사각지대에 LED 등을 새로 달았다. 낡은 전기 분전함도 새것으로 바꾸고, 무분별하게 분기된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도 했다.

이날 봉사 활동은 건축과 전기, 기계 등 기술직 직원들의 고유 기술을 십분 활용한 기술 봉사로 소외된 이웃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와 별개로 공단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술직 직원들로 구성된 사랑나눔기술봉사단을 통해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구대식 이사장은 "지역사회 공헌은 공기업의 사명"이라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설공단 직원들이 기술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